

현대차, 프랑스 여자월드컵 특별전시관 개관

프랑스 파리 벨송 만델라 공원에 조성

현대자동차는 지난 7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프랑스 파리, 리옹, 니스 등을 비롯한 프랑스 주요 9개 도시에서 진행 중인 '2019 FIFA 프랑스 여자월드컵'을 기념하기 위한 특별 전시관을 지난 15일 개관했다고 17일 밝혔다.

현대자동차가 FIFA 세계축구박물관과 협업을 통해 준비한 이번 전시관은 파리에 위치한 벨송 만델라 공원에 마련됐으며 15일부터 대회 종료일인 7월 7일까지 23일간 여성 축구 역사와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를 전시한다.

이번 전시관은 150㎡ 규모로 조성됐으며 건물 외부를 자동차의 에어백 소재로 제작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현대자동차는 FIFA 공식 파트너로서 월드컵 기간 동안 사회의 많은 장벽과 고정관념을 깨고 어려움을 극복한 여성 선수들의



‘2019 FIFA 프랑스 여자월드컵’을 기념하기 위한 특별 전시관 ‘FIFA World Football Museum presented by Hyundai’의 외관. /현대자동차

내면 속 강렬한 열정을 존중하고 응원한다는 메시지를 담은 ‘True Passion(진정한 열정)’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특별 전시관 역시 ‘True Passion’ 캠페인의 일환으로 여자 축구 선수들의 강한 모습과 진정한 열정을 전 세계 축구 팬

들에게 소개하고 1991년 개최된 제1회 FIFA 여자월드컵 이전부터 올해 ‘2019 FIFA 프랑스 여자월드컵’까지 오랜 기간 동안 축적된 여자 축구 역사와 다양한 축구 유산의 소개를 통해 이번 대회에 대한 기대감과 흥미를 제고하고자 전시를 기획했다.

이번 특별 전시관은 여자월드컵 이전의 여자 축구 역사, 1991년 중국에서 열린 제1회 FIFA 여자월드컵부터 2015년에 개최된 ‘2015 FIFA 캐나다 여자월드컵’까지의 FIFA 여자 월드컵 역사, 프랑스에서 진행 중인 ‘2019 FIFA 프랑스 여자월드컵’ 관련 콘텐츠 등 세 개의 테마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전시관에는 스위스 취리히 소재 FIFA 세계 축구 박물관에 소장된 여자월드컵의 실제 우승 트로피를 비롯한 주요 전시품들을 옮겨와 전시하며 영국의 비주얼 아티스트 레이철 개스텐의 그림을 전시했다. /정영우 기자 ywj964@metroseoul.co.kr

덜 해로운 담배



기지수첩 박인웅 (유통&라이프부)

아이코스, 글로, 릴 등 ‘관련형 전자담배’가 국내 점유율을 빠르게 높여가는 가운데 쥘, 릴 베이퍼 등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가 출시되면서 전자담배의 유해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담배업계에서는 전자담배가 일반담배와 비교해 덜 해롭다고 강조하지만, 담배가 해롭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는 상황이다.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내 담배시장에서 관련형 전자담배 판매량은 11.8%에 달할 정도로 점유율을 빠르게 늘려가고 있다. 올해 1분기 관련형 전자담배의 판매량은 9200만갑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880만갑)보다 33.6% 증가했다.

이는 국민들이 일반담배보다 관련형 전자담배가 ‘덜 해로운’ 대안으로 인식하고, 금연의 대체재로 선택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라는 분석이다.

담배업체와 각국의 정부는 유해성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필립모리스는 최근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아이코스에 대한 시판 허가는 얻어냈

다. 하지만 FDA로부터 ‘관련형 전자담배의 안전성’을 승인받지 못했다. 아울러 FDA 담배 제품 과학자문위원회는 지난해 1월 아이코스가 담배 관련 질환의 위험성을 줄인다는 필립모리스의 주장에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다.

최근에는 신종 액상 전자담배의 유해성에 대해서도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외국 언론에서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흡연 대체효과를 10~30% 정도이며, 일반담배와 액상형 전자담배 둘 다 사용하고 있는 흡연자가 상당수라고 보도한 바 있다.

우리 정부는 관련형 전자담배,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전자담배 판매량이 증가하자 일반담배에 넣었던 경고그림을 전자담배에도 도입했다.

앞으로는 합성 니코틴을 쓰거나 담배 뿌리 또는 줄기를 이용한 유사담배를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하고 담뱃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전자담배 전용기구도 담배에 준하는 규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을 근절하고, 신종 담배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냐. /parkiu7854@metroseoul.co.kr

한진택배, 농협택배와 농촌 일손돕기 맞손

농번기 농촌 일손을 돕기 위해 한진택배와 농협택배가 손을 잡았다.

한진택배는 농협택배와 공동으로 올해 11월까지 농촌 일손 돕기 봉사활동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한진과 농협물류는 지난 2017년부터 농업인 대상으로 농산물 택배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전략적 제휴를 맺고 택배 서비스를 강

화해왔다.

아울러 지난해부터는 농촌의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해 일손 부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각사 임직원 100명씩, 총 200여 명이 참여해 봉사활동도 진행해왔다.

올해도 한진택배는 자매결연이 체결돼 있는 지역농협과 연계해 총 5개 지역의 농가를 방문, 영농철 농가 일손 돕기에 나섰다.

첫 방문 지역은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으로 지난달 13일과 14일 이틀간 모판 나르기

와 고추지지대 설치를 도왔다. 또 이달에는 지난 3일과 10일 각각 충북 음성군 감곡면과 충남 천안시 성환읍을 방문해 복숭아 봉지 씌우기와 고추지지대 설치 작업을 진행했다.

이외에도 전북 무주와 충북 괴산 등을 방문해 고추 비닐 씌우기, 배추 수확 등을 오는 11월까지 이어나갈 예정이다.

/김승호 기자 bada@

오늘의 운세 6월 18일 (음 5월 16일)

http://www.saju4000.com

- 쥐** 36년생 싫어도 좋아도 금방 표현하지 마라. 48년생 싸워서 이길 상대가 아니니 일찍이 포기하는 것이 좋다. 60년생 오늘 걸어야 내일 뉘지 않는다. 72년생 길 길이 멀어도 일단 시작하면 좋은 결과. 84년생 경계를 넘는 것을 두려워 마라.
- 소** 37년생 산도 좋고 물도 좋는데 정자까지 좋은 곳 없다. 49년생 전체를 파악해야 내가 갈 길이 보인다. 61년생 내 것은 작아 보이니 내 자식은 커 보인다. 73년생 시작이 좋은 결과를 낳는다. 85년생 비정상적인 이상과 만남은 반드시 말성.
- 호랑이** 38년생 마음은 별이라도 딸 듯한 기세지만 자중할 때. 50년생 아는 길도 물어가고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라. 62년생 길을 떠나면 발걸음이 가볍다. 74년생 사람을 믿는 것이 가장 큰 자산. 86년생 대화의 가장 중요한 기술은 잘 듣는 것.
- 토끼** 39년생 손재수가 있으니 투자는 신중히 해야. 51년생 가족의 힘으로 무서히 일을 마무리. 63년생 마음이 상하고 몸은 힘드나 재물은 얻는다. 75년생 주변의 실수가 내게 이익으로 돌아온다. 87년생 명예 손상이 우려되니 말과 행동을 조심.
- 원숭이** 40년생 새로운 기회를 얻어 좋은 결과를 본다. 52년생 아래사람에게 한 격려 큰 성과로 돌아온다. 64년생 남에게 해를 끼치면 2배로 돌아오니 주의. 76년생 다소 예민한 날이니 휴식이 필요. 88년생 바람이 불어오니 새로운 일이 시작.
- 뱀** 41년생 몸만이 있어도 내색을 말아야 마음이 편하다. 53년생 일이 미뤄져도 느긋하게 기다리면 해결. 65년생 기회가 왔어도 능력이 없으면 소용없다. 77년생 흐지부지 될 수 있으니 확실한 문서로 남겨라. 89년생 진인사대천명이니 노력을.

- 말** 42년생 귀인을 만나니 투자를 하는 것도 좋다. 54년생 기다리면 문서일수록 자세히 살펴야 실수가 없다. 66년생 결과부터 챙기지 말고 차분히 계획을 세워라. 78년생 한 번을 참으면 열흘이 편하다. 90년생 본인에게도 시간을 투자해 보자.
- 양** 43년생 자식이 마음에 안 들어도 미워할 수 없다. 55년생 먹을 복이 많은 하루. 67년생 힘들어도 걸어오던 길을 계속 가야 한다. 79년생 낡은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취할 때 좋은 운이 들어온다. 91년생 낭만과 사랑이 넘치는 하루.
- 원숭이** 44년생 남의 의견에 좌우되지 말고 주관을 갖고 행동. 56년생 행복은 가정의 화목에서 시작된다. 68년생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을 조심하라. 80년생 신용을 지키지 않고서는 진보도 없다. 92년생 시련처럼 보이나 뜻밖의 좋은 일이다.
- 닭** 45년생 유래, 상괘, 통쾌한 하루. 57년생 굴이 깊으면 산도 높은 법이니 희망을 버리지 말고 노력. 69년생 고목에 꽃이 피었으니 좋은 일. 81년생 양손을 주머니에 넣고서는 성공을 할 수 없다. 93년생 재물의 갈등이 생겨도 내게는 유리.
- 개** 46년생 구설수를 조심하고 특히 대화에 주의. 58년생 지치기 쉬운 날이니 건강에 신경. 70년생 눈앞의 실속을 챙기다 보면 큰 이익을 놓치게 된다. 82년생 게으른 예술가가 만든 명작은 없다. 94년생 좋은 일이 생겨도 자랑은 신중히.
- 돼지** 47년생 조용히 지내야 하는 날. 59년생 힘들다고 피하거나 외면하지 마라. 71년생 마음이 혼란스러우면 독서로 달래보자. 83년생 열정과 에너지가 솟아나니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 95년생 조급한 결정이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있는 운.

SUDOKU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 듬뿍! 아이큐 쑥쑥!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세로 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4	3		
4	7	1	9	2	
2				1	
	5	3	1	4	
7	1		9		6
6		8	5		7
1	9	2	4	5	6
	7			2	

			4		
		8			1 7
6	9		2		5
	6	8	7		9 4
				5	6 1
	9	1	5		3 8
8	4		9		2
		7			4 9
			2		

스도쿠 정답								
6	8	2	9	5	1	3	7	4
5	9	5	7	1	2	6	1	8
1	7	1	5	6	8	2	9	4
9	6	2	7	5	1	8	3	7
2	1	7	1	8	5	9	6	3
5	1	8	2	9	6	7	2	5
8	2	5	6	1	2	9	6	1
7	5	1	8	2	9	5	6	1
1	6	9	5	7	8	2	3	4
2	8	9	5	7	6	5	1	1



김상희의四季

지나친 이기심은 대가 치러

얼마 전 외국에서 안타까운 여객기 사고가 있었다. 78명을 태우고 비행하던 여객기에 문제가 생겨 회항을 했고 비상착륙을 하던 중에 참사가 벌어졌다. 활주로에 착륙하던 여객기에 화재가 발생해 41명이 숨진 것이다. 황당한 일은 나중에 알려졌다. 불이 난 여객기에서 탈출하는 와중에 한 승객이 짐을 챙기겠다고 통로를 막았다는 것이다. 그로 인해 뒤쪽에 있던 사람들이 무더기로 희생되고 단 3명만 생존했다고 한다. 그 승객은 탑승권을 환불해 달라고 강력히 항의하는 적반하장 모습까지 보였다. 일반 사람들의 상식으로 상상하기도 힘든 행동이다. 그런 사람은 남이야 어떻게 자기 것만 챙기는 이런 극단적 이기주의는 사주에 비겁이 강한 경우가 많다. 인성을 찾아보기 어렵게 타고났고 살(殺)의 기운만 있다면 자라면서 인격을 형성할 환경이 안 되었을 때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성격을 보여준다. 그런 가운데 화가 강하기까지 하면 배우자를 인정사정없이 괴롭힌다. 음의 기운이 일주를 강하게 지배하고 육친과 오행의 기운이 지나치게 불균형을 이루고 있어도 이기심이 심하다. 이런 사람은 고집 부리는 것을 넘어 자기만의 독단적 행동을 일상으로 행한다. 그러나 모든 일에는 대가가 있기 마련이다. 유교나 불교에서 인과응보라고 말하는 게 그것이다. 이렇게 지나치게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중년부터 시작해서 말년운이 좋지 않다. 세상에 뿌린 악행으로 인해 남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재물도 손실을 입게 된다. 결국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외로움 속에서 인생을 보내게 된다. 사람은 누구라고 할 것 없이 자기 이익을 챙긴다. 그러나 남들에게 눈물 흘리게 만들고 내 이익만 챙기는 행동을 한다면 언젠가는 그만큼 대가를 치러야 한다.

‘김상희의 세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 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중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편집인 편집국장	이장규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4222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0326호